

金史良 문학과 内鮮一体

— 朝鮮民衆의 言語와 삶을 지키려한 苦肉之計의
문학을 중심으로 —

김 학 동*

目 次

머리말

1. 김사량 문학과 민족주의적 저항
2. 「빛 속으로(光の中に)」에 대한 재평가
3. 「광명(光冥)」과 내선일체
4. 「향수(鄉愁)」와 대동아 공영
5. 조선말과 민중을 위한 협력적 제스처

맺음말

머리말

김사량 문학을 연구하는데 있어 조심스러운 것은, 그의 문학을 민족주의 입장에서 일체에 항거한 문학이라 볼 것인가, 아니면 일체의 식민지배 정책에 영합해간 문학으로 볼 것인가 간단명료하게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는 김사량이 일제 식민지 말기의 극심한 탄압 속에서 마지못해 글쓰기를 했다하더라도 이광수 등과 같이 적극적인 친일 협력으로 돌아선 많은 문인들이 쏟아 낸 글들과는 그 목적과 내용을 달리하기 있기 때문이다. 그를 민족주의 문학가로 부각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되는 중국으로의 탈출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그의 문학에서 엿보이는 작가적 태도는 친일 협력적 문학을 하였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 충남대학교 박사과정, 제일조선인 문학 전공.

김사량이 나름대로 자신의 사상에 토대를 둔 문제의식을 가지고 활발한 작품 활동을 했던 기간은 「빛 속으로」를 완성한 1939년 4월부터 사상범 예방 구금법에 의해 구금되기 이전의 1941년 12월 초까지로 2년 6개월 남짓한 시간에 불과하다. 본고에서는 이 시기를 「자발적 창작 전념기」로 부르려고 하는데, 이의 근거는 제1장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로 한다.

그런데 김사량이 활발히 작품 활동에 임했던 「자발적 창작 전념기」의 짧은 기간 역시 일제가 내선일체(內鮮一體) 사상에 의한 황국신민화(皇國臣民化)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던 시점이었기에 그의 작품은 당시의 시대적 어두운 그림자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그 내용들은 대부분 멸망해가는 조선의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작품이거나,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의 비참한 생활을 다룬 것이 많은데, 그 중에는 민족차별의 심각성을 본격적으로 그려냄으로써 일제의 내선일체 정책의 허구를 비판하는 작품도 있다.

이러한 내선일체 정책의 허구를 비판하는 작품의 대표적인 예로서 「빛 속으로」와 「광명(光冥)」을 들 수 있다. 그런데 「빛 속으로」와 관련하여 「내선일체의 기만성을 폭로한 작품으로 김사량이 문학적 좌절을 맞게 되는 내적 이유」¹⁾라는 정백수의 평가는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빛 속으로」 이후 채 2년이 지나기도 전에 발표된 「광명」의 경우에는 이러한 평가와는 다르게 내선일체에 대한 비판의식과 함께 이를 긍정하는 듯한 표현들이 동시에 엮보인다. 이와 같은 변화는 이들 두 작품과 발표시기가 비슷한 평론 「조선문학풍월록(朝鮮文學風月錄)」과 「조선문화통신(朝鮮文化通信)」에서도 확인된다.

본고에서는 김사량의 「자발적 창작 전념기」 작품 중에서 내선일체에 대한 저항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소설 「빛 속으로」 「광명」 「향수(鄉愁)」와, 평론 「조선문학풍월록」 「조선문화통신」의 고찰을 통해 김사량 문학에 대한 평가의 객관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즉 일제치하의 문학 작품에 보이는 친일적 기술이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가에 대한 규명을 통하여 민족주의 작가로서의 위상을 재고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鄭百秀(1991,7) 「金史良 小説 研究」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34쪽.

1. 김사량 문학과 민족주의적 저항

김사량의 작품 활동은 동경제국대학 재학 시절인 1936년에 동인지 『제방(堤防)』을 만들고 「토성랑(土城廊)」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본격적인 작가생활을 시작한 것은 1939년 『文芸首都』 10월호에 발표한 「빛 속으로(光の中に)」가 제10회 아쿠타가와(芥川)상 후보작으로 선정되면서부터이다. 이때부터 김사량은 많은 작품과 평론을 쏟아내기 시작한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기자림(箕子林)」(『文芸首都』 1940.6), 「천마(天馬)」(『文芸春秋』 1940.6), 「무성한 풀밭(草深し)」(『文芸』 1940.7), 「무궁일가(無窮一家)」(『改造』 1940.9), 「광명(光冥)」(『文學界』 1941.2), 「유치장에서 만난 사나이」(『문장』 1941.2), 「향수(鄉愁)」(『文芸春秋』 1941.7), 「벌레(虫)」(『新潮』 1941.7), 「곱사왕초(親方コブセ)」(『新潮』 1942.1) 등이 있고, 평론으로는 「조선문학풍월록(朝鮮文學風月錄)」(『文芸首都』 1939.6), 「조선문화통신(朝鮮文化通信)」(『現地報告』 1940.9) 등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왕성한 작품 활동은 일제가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다음 날인 1941년 12월 9일 김사량이 사상범 예방 구금법에 의해 가마쿠라(鎌倉) 경찰서에 구금당함으로써 막을 내리게 된다.

뜻하지 않던 구금으로 고초를 겪던 김사량은 1942년 1월 29일 김달수를 비롯한 지인들의 도움으로 겨우 석방되자, 허겁지겁 조선으로 돌아와 폐간되고 얼마 남지 않은 친일 잡지나 신문 등에 마지못해 글을 실으며 중국탈출을 계획하고 있었다. 이때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태백산맥(太白山脈)』(『國民文學』 1943.2~10)과 『바다의 노래』(『매일신보』 1943.12.14~1944.10월 초) 등이 있고, 르포로는 「해군행(海軍行)」(『매일신보』 1943.10.10~10.23)이 있다.

이와 같은 김사량의 작품 활동 시기를 추석민은 「초기, 중기, 후기」²⁾로 나누고 있는데, 「빛 속으로」를 발표하기 이전의 작가로서의 준비 단계가 「초기」에 해당하며, 1942년 1월 조선으로 돌아온 이후의 작품 활동 기간은 「후기」에 해당된다. 「초기, 중기, 후기」의 분류방법도 나름대로 의의는 있으나, 「초기, 후기」의 활동이 「중기」에 비하여 미약하므로, 활발

2) 秋錫敏(2001) 『金史良文學の研究』 제이앤씨, 2쪽.

했던 창작기 「중기」를 「자발적 창작 전념기」로 부르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자발적 창작 전념기」를 추석민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김사량이 민족주의 작가로서 명성을 얻은 것도 이 시기의 창작에 의한다. 즉, 김사량이 무엇보다 창작에 정열을 쏟고 있던 시기이고, 또 예술적인 완성도에 있어서도 가장 성공한 시기이다. 이 시기의 작품은 두 개의 작품 군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재일조선인과 그 사회를 그려낸 것과, 또 하나는 일제치하의 조선인과 그 사회를 그려낸 것이다.

(金史良が民族主義作家として名声を得ているのも、この時期の創作による。即ち、金史良が最も情熱を創作に傾けていた時期であり、また芸術的な完成度においても最も成功した時期である。この時期の作品は二つの作品群に分けられる。一つは在日朝鮮人とその社会を描いたもの、もう一つは日帝下の朝鮮人とその社会を描いたものである。) 3)

즉, 이 시기는 식민 지배 아래에서 신음하는 조선인과 재일조선인의 비참한 생활을 그려냄으로써, 일제의 식민 통치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작품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또한 「자발적 창작 전념기」 이후의 작품 활동에 대하여 추석민은,

이 시기의 작품 군도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된다. 즉, 일본어로 쓴 것과 조선어로 쓰인 것이다. 특히 조선어 작품은 「썼다」라기 보다는 「쓰였다」라는 편이 옳을 정도로 절박한 상황 하에서 일제의 정책문학에 협력했던 것이다.

(この時期の作品群も大きく二つに大別される。即ち、日本語で書いたものと朝鮮語で書かれたものである。特に朝鮮語での作品は「書いた」というより「書かれた」というのが正しいほど、切迫した状況下で日帝の政策文学に協力したものである。) 4)

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작품에도 「이 작가는 그가 풍기는 강한 로칼리즘(민족주의 성향)에 비해서 시국적 선동력은 미약한 작가였다」⁵⁾고 친일문학 평론가 임종국이 언급하고 있듯이, 친일협력적 작품일 것이라는 선입감을 무색하게 만드는 민족의식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3) 주(2) 『金史良文学の研究』 3쪽.

4) 주(2) 『金史良文学の研究』 3쪽.

5) 林鐘国(2002) 『親日文学論』 민족문제연구소, 207쪽.

그런데 문제는 「자발적 창작 전념기」에 집필된 「광명」이나 「향수」와 같은 작품 속에도 내선일체 정책을 긍정하는 듯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물론 그 이면에는 조선민족에 대한 작가의 깊은 애정이 토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김사량의 일부의 작품에서 보이는 이러한 모순이야말로 민족말살의 위기를 지켜보는 양심적인 지식인이 내포한 갈등구조의 단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빛 속으로(光の中に)」에 대한 재평가

일본어 소설 「빛 속으로」가 발표된 1939년은 일제가 중일전쟁을 일으키면서 조선의 인적 물적 자원을 수탈하기 위해 내선일체의 실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던 시기였다. 1938년에는 이미 조선어교육을 폐지하고 일본어 상용(常用)을 강요하기 시작하였으므로 한국어로 작품을 쓰는 것도 점차 제한되기 시작하였을 무렵이다. 그러나 「빛 속으로」를 일본어로 쓴 것은 이러한 강압 때문만은 아니었다.

1939년 6월 『文芸首都』에 발표된 평론 「조선문학풍월록」에서 김사량은 일본어 글쓰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내지어로 써야만 할 것인가? 물론 쓸 수 있는 사람은 써도 좋다. 그러나 일부러 모든 희생을 감수해가면서까지 내지어로 글을 써야 할 경우에는 그 당사자에게 매우 적극적인 동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선의 문화와 생활과 사람을 좀 더 넓은 내지(일본)의 독자층에게 알린다고 하는 동기. 나아가서는 조선문화를 동양과 세계에 확산시키기 위해 그 중개자로서의 노고를 마다하지 않겠다는 동기. 이렇게 고귀한 생각이 없다면, 자신의 말로 전달해야 할 많은 독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버리고 일부러 쓰기 힘든 내지어로 쓸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内地語で書くべきであろうか? 勿論書ける人は書いていい。だがわざわざあらゆる犠牲を払って内地語で書きものをするという場合には、その当人に非常に積極的な動機がなければならぬと思う。朝鮮の文化や生活や人間をもっとひろい内地(日本)の読者層へ訴え出るといふ動機。又謙遜な意味で云えば、引いては朝鮮文化を東洋や世界へひろめるためにその仲介者の労をとりたいたいという動機。この貴いものがなければ、自分の言葉と話しかけるべき広い読者をもちながら、それをすててわざわざ書きにくい内地語で書こうとする必要が今のところどこにあるか。) 6)

실제로 「자발적 창작 전념기」 작품들의 대부분은 일본어로 된 작품인데, 이는 강압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식민지 조선을 일본인들에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평론의 전체적인 맥락도 내선일체에 찬동하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조선을 일본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세계적인 작가 출연의 필연성을 강조한다든지, 조선문학을 일본에 보급하기 위한 번역기관의 설립을 강력히 주장함으로써, 조선의 말과 문화가 일본의 그것에 흡수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들을 힘차게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주장들은 이미 내선일체 정책의 본격적인 추진에 위기감을 느낀 저항의식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어찌되었든 이러한 평론을 당당히 문예잡지에 발표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아직은 언론 통제에도 약간의 숨통은 트여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소설 「빛 속으로」 역시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탄생한 작품인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해방되어 조선으로 귀국한 김사량은 1945년 12월에 참석했던 어느 좌담회에서 이태준으로부터 「나는 같은 조선작가로 최후까지 조선어와 운명을 같이 하려 하지 않고 그렇게 쉽사리 일본말에 붓을 적시는 사람을 은근히 원망했습니다」⁷⁾와 같이 일본어 글쓰기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받게 된다. 그러자 김사량은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한다.

그러나 한 마디로 말하자면 문화인이란 최저의 저항선에서 二步退却 一步前進하면서 싸우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썼느냐가 議題가 될 문제이지 좀 힘들어지니까 또 옷 밥이 나오는 일도 아니니까 쪽 들어가 팔짱을 끼고 앉았던 것이 드높은 문화인의 정신이었다고 생각하는 데는 나는 반대입니다.⁸⁾

이러한 김사량의 반론에 대하여 김윤식은 저서 『한일문학의 관련양상』에서 냉정한 자세로 평가한다.

우리는 김사량의 叙上의 자기변명이 타당하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 즉 문화인의 임무가 자기주장대로 「최저의 저항선에서 二步退却 一步前進하면서도

6) 金史良 「朝鮮文化風月錄」, 『文芸首都』 1939年 6月号, 『金史良全集IV』 河出書房新社, 1973. 11쪽.

7) 「문학자의 자기비판」 《우리문학》 1946. 창간호 45쪽. 김윤식(1974) 『한일문학의 관련양상』 一志社, 48쪽.

8) 주(7) 『한일문학의 관련양상』 50쪽.

싸우는 것」이라면, 그리하여 「무엇을 위해서 썼느냐가 논의될 문제」라고 한다면, 한국문학이란 것이 消滅한 자리에서의 이야기다. (중략)

아마도 김사량의 延安行은 그 최저 저항선이 끝내 불가능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이 자기 변명은 일종의 모순이 아닐 수 없다. 9)

이러한 비판은 조선의 작가로서 일본어 글쓰기를 한 행위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는 데는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김사량이 일본어를 좀 더 중요한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으로 사용하려 했다는 분명한 의사 표현을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너무 원리원칙에 얽매어 극단적인 상황으로 논의를 이끌고 있는 감이 없지 않다. 김사량은 중국의 연안으로 탈출할 때까지 일본어로만 글을 쓴 것도 아니고, 일본어로 쓰면 저항선이 지켜진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닐 것이다. 즉 최저의 저항선이라는 말은 <절대적으로 지켜낼 수 있는 자신 있는 상황> 이 아니라 <싸울 수 있을 때까지>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자연스럽다. 처해진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더 이상 작가적 양심의 가책을 견디기 힘든 상황이 되자 연안 탈출을 시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진술한 평론 「조선 문화 풍월록」에서 김사량이 조선어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 내용만 보더라도 논리만을 앞세운 경직된 가늠자로 그의 문학을 논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빛 속으로」는 1939년 하반기 제10회 아쿠타가와(芥川)상 후보작으로 선정되어 김사량 자신은 물론이고 조선민족이 당면한 고통을 일본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의 아쿠타가와 상 심사위원의 한 사람이었던 가와바타 야스나리(川端康成)의 선평(選評)을 보면 「빛 속으로」를 둘러싼 관심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다.

「密獵者」와 「流刑囚의 妻」를 쓴 사무가와 고타로(寒川光太郎)씨나, 「빛 속으로」를 쓴 金史良씨를 뽑고 싶었던 것은 나 역시 다른 위원들과 마찬가지로였다. 나는 「빛 속으로」를 수상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은 웬지 서운했다. (중략)

김사량씨는 좋은 작품을 썼다. 민족의 감정이라는 커다란 문제를 다룸으로써 앞으로 성장이 크게 기대된다. 문장도 좋다. (하략)

(「密獵者」及び「流刑囚の妻」の寒川光太郎氏か、「光の中に」の金史良氏かを選びたかったのは、他の委員諸氏と私も同じであった。私は「光の中に」を選外とするのは、なにか残念であった。(中略)

9) 주(7) 『한일문학의 관련양상』 50, 51쪽.

金史良氏はいいことを書いてくれた。民族の感情の大きい問題に触れて、この作家の成長は大いに望ましい。文章もいい。(下略) 10)

가와바타 이외에 당시의 심사에 참여했던 저명한 작가 9인의 선평도 모두 극찬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자극받은 김사량은 작품창작에 온 힘을 기울여 「자발적 창작 전념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렇게 유명해진 「빛 속으로」에 대한 평가는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 재일문학자 임전혜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일본 문단의 호의적인 평가의 대부분은 조선인 작가 스스로가 민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데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빛 속으로」는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 정책인 「내선일체」사상을 〈조화되지 못하는 이원적인 것〉으로 파악함으로써 「내선일체」정책에 대한 대담한 비판을 표명한 작품이었기 때문에 이후의 김사량의 작가적 행보가 험난할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했다. (日本文壇の好意的な批評の多くは、朝鮮人作家自らによる民族問題の提起という点に集中していた。しかし「光の中に」は、日本帝国主義の植民地政策—「内鮮一体」策を、〈調和されない二元的なもの〉としてとらえることで「内鮮一体」策への大胆な批判を表白した作品であったために、その後の金史良の作家的道程の険しさをまざまざと示すものであった。) 11)

임전혜의 「빛 속으로」에 대한 평가는 연구자들의 거의 공통된 견해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내선일체정책〉에 대한 대담한 비판을 표명한 작품」이라는 견해는 주목할 만한 것이다.

「빛 속으로」를 이와 같이 일체에 의한 내선일체 정책의 허구를 폭로하려는 작품으로 접근하려는 연구의 흐름과 맥락을 같이하면서 「내선일체의 기만성의 폭로」라는 보다 명쾌한 논리로 김사량의 작품 분석을 시도한 연구로 정백수의 논문을 들 수 있다.

김사량의 소설이 「내선일체의 기만성」을 가장 선명히 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은 식민지 기간의 한국과 일본의 문학을 통틀어 김사량 문학이 가지는 독보적인 영역으로 보인다. 또한 이 점은 내선일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다루고

10) 『芥川賞全集 第二巻』文芸春秋社, 1982. 397쪽.

11) 任展慧(1973) 「『光の中に』解題」 『金史良全集 I』河出書房新社, 377쪽.

있는 한국인 일본어 작가의 대부분이 내선일체의 사상에 함몰되어 간 데 반해, 김사량의 문학은 내선일체에 대한 고민과 좌절을 드러내고 있고 그것이 불가능해지자 결국 연안으로 탈출하게 되는 문학내적인 이유이다. 12)

그런데 문제는 김사량의 「빛 속으로」와 같이 내선일체에 대한 저항의식을 내포하고 있다고 평가 받고 있는 작품 속에 한편으로는 이를 긍정하려는 듯한 내용 역시 포함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내선일체의 기만성」을 폭로하는 한편, 이의 해소를 위한 방편으로써 조선민족에 대한 차별해소가 그 이면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제대로 된 내선일체의 실상을 주장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기에, 지배국인 일본인들에게 감동을 주어 아쿠타가와(芥川)상 후보에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이다.

조선의 작가라는 뚜렷한 의식과 목적을 가지고 일본어로 글쓰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려해야 되겠지만, 작품 속에 내선일체를 긍정하는 듯한 전개를 보였다면 이것이야말로 작가의 정체성에 커다란 혼란을 야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자발적 창작 전념기」의 작품 중에서 「빛 속으로」만이 이러한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면, 「내선일체의 기만성」을 폭로하려는 창작을 했다는 기존의 김사량의 평가에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빛 속으로」보다 일 년 반가량 늦게 발표된 「광명(光冥)」 역시 조선인과 일본인으로 맺어진 가정이 겪는 불행과 갈등을 그려낸 작품인데, 여기에서는 내선일체를 긍정하고 옹호하여 가정의 화목을 도모하려는 시도가 엿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당연히 「내선일체의 기만성」을 폭로하는 것으로 일관하려 했다는 기존의 김사량에 대한 평가는 설득력을 잃게 된다.

따라서 「광명」과 마찬가지로 조선인과 일본인이 결합한 가정의 불행을 다룬 「빛 속으로」 역시 「내선일체의 기만성에 대한 폭로」라는 단편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한 재평가가 요구된다 하겠다.

12) 주(1) 「金史良 小説 研究」 45쪽.

3. 「광명(光冥)」과 내선일체

1940년 9월 『現地報告』에 발표한 평론 「조선문화통신」의 내용은 1939년 6월에 발표된 평론 「조선문화풍월록」의 그것과 본질적인 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조선문화풍월록」에서 엿보이던 조선민족으로서의 독립적인 언어와 문화생활의 확보라는 당당한 주장은 많이 사라지고, 어떻게든 그것을 잔존시켜야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비롯된 애원에 가까운 호소문이라 하는 편이 차라리 옳을 것이다. 김사량 스스로가 내선일체라는 용어를 세 번씩이나 사용하며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데에는 그만큼 시대적 상황이 급박해 졌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민족독립에 대한 확신이 그 만큼 약화되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러나 조선어로 저술하는 것이 비애국적이라는 식의 주장을 하는 일파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묵과 할 수 없다. 현재 시국논객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印貞植씨도 「내선일체의 이념」(人文評論)이라는 논문에서 확실하게 결론짓고 있다. 즉, ‘조선내의 문학자가 아무리 시국에 눈을 뜨고 내선일체의 이념 아래에서 움직이려 해도 실제로 조선인의 대부분이 읽지 못하는 내지어(일본어)로 쓴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될 것이다’라고. —이러한 생각은 나 역시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だが朝鮮語で述作することが非愛国なりというのが如き一派の言に対しては、われわれは決して黙過することは出来ない。現在時局論客として重きをなしている 印貞植氏も、「内鮮一体の理念」(人文評論)という論文の中においてははっきりと結論している。即ち朝鮮内の文学者がどんなに時局に目覚め、内鮮一体の理念のもとに動こうとも、実際に朝鮮の人の殆んどが読めない内地語で書くとすれば、それこそ笛吹けど人は踊らずということになろうと。—ここういう考えの仕方は私は一番大事なことだと思っている。) 13)

인용한 내용은 결국 조선인들에게 내선일체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잘 모르는 일본어보다도 조선어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니 조선어 사용을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하고 있는 말이다. 이러한 주장의 이면에는 기왕에 내선일체를 막을 수 없는 바에야 조선어와 문화만이라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이 숨겨져 있음을 쉽게 짐작 할 수 있다.

13) 金史良 「朝鮮文化通信」 『現地報告』 文芸春秋社, 1940, 9, 『金史良全集Ⅳ』 河出書房新社, 1973, 26쪽.

이런 절박함 속에서도 조선어 글쓰기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는 「조선문학풍월록」의 그것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둘째로, 조선의 사회나 환경과 관련된 동기와 정열이 고조됨으로 해서 포착한 내용을 형상화 할 경우, 그것을 조선어가 아닌 내지어로 쓰려고 할 때, 작품은 아무래도 일본적인 감정과 감각에 해를 입기 쉬운 것이다. (중략)

어쨌든, 내지어로 쓰는 것은 작가 개인과 관련된 것으로, 조선문학이 조선어로 쓰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엄연한 진리인 것이다. (중략)

셋째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내지어로 쓰라고 해도 실제로 있어서 내지어를 써서 예술적으로 형상화 할 수 있는 사람은 불과 몇 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第二には、朝鮮の社会や環境において動機や情熱が盛りたてられ、それらに依って摺んだ内容を形象化する場合、それを朝鮮語でなしに内地語で書こうとする時には、作品はどろいても日本的な感情や感覚に禍されようとする。 (中略)

何れにしろ、内地語で書く書かないは、作者の一個人に関することであって、朝鮮文学が朝鮮語で書かれねばならないことは厳然とした真理であろう。 (中略)

又第三に最も根本的なことは、内地語で書くと云っても、實際の所内地語で芸術的に形象出来る人はほんの幾人しかいない事実である。) 14)

조선어 글쓰기의 타당성을 역설하면서 일본어와의 문화교류 촉진을 위한 방안으로 번역기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하는데, 여기에 또 다시 내선일체에 동조하는 언급이 반복된다.

내지어(사용)의 철저화 방침도 점차 강화되고 있고, 조만간 의무교육까지 실시된다면 훨씬 넓은 범위로 내지어가 보급될 것이다. 또 이것은 내선의 융합일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다. (중략)

정신적인 진정한 내선일체도 문학을 통해서만 원활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만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내지어로만 써야한다는 사고방식이다.

(内地語の徹底化方針も次第に強められているし、近いうちに義務教育まで実施されるならば、もっと広い範囲に内地語が普及されることになろう。又このことは内鮮の融合一体のためにも是非必要なことである。 (中略)

精神的な眞の内鮮一体も文学を通じてのみよく行われるのである。ただ警戒すべきことは、内地語によってのみ書かねばならぬとか云った考え方であろう。) 15)

14) 주(13) 『金史良全集Ⅳ』 27쪽.

15) 주(13) 『金史良全集Ⅳ』 28,29쪽.

당시의 내선일체에 의한 황국신민화의 추진상황은 인용문에서 김사량이 언급하고 있듯이, 1940년 2월부터 창씨개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었고, 강압적인 일본어 사용의 압력이 날이 갈수록 거세지면서 조선어교육의 폐지를 앞두고 있던 시기였다. 김사량의 이러한 내선일체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은 힘없는 일개의 문필가로서 할 수 있는 일, 즉 언론을 통한 조선어 폐지에 대한 반론제기와 호소를 위한 전제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즉,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대세로서 추진되고 있는 황국신민화를 위한 내선일체라면, 조선민족의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는 언어와 문화만이라도 지켜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조선문화통신」에서 볼 수 있는 내선일체 정책에 대한 협조적인 태도는 이와 거의 같은 시기에 쓰인 소설 「광명」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광명」은 1941년 2월 『文學界』에 발표된 작품으로, 조선인 대학생으로 등장하는 주인공인 「나(私)」가 누나부부와 조카, 당국에 비판적인 작가인 문군(君), 그리고 조선인 식모와 마찰을 빚는 일본인 아내를 둔 조선인 남편의 가정인 清水집안 식구들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을 함께 겪으면서 느끼는 갈등과 이의 해결노력을 다루고 있다.

이 작품이 「빛 속으로」와 다른 점이 있다면 조선인 부인인 貞順이 겪어야 했던 인간적 존재가치의 부정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며, 가족의 구성도 조선인 남편이 일본인 아내를 두어 남편으로서의 가정적 권위는 인정되고 있다는데 있다. 그러나 사회제도적인 차원에서는 여전히 극심한 차별이 존재함으로써 가장인 清水를 비롯한 가족의 구성원들이 직면한 인간성 파괴와 더불어 주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이 작품에서는 정신적 갈등으로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등장인물을 일본인 여성인 清水부인으로 설정함으로써 「내선일체의 기만성」이 일본인에게도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띄인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작품구성은 좀 더 현실적이고 이상적인 내선일체의 실현을 강조하는 면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다음에 인용하는 대목은 清水집안에서 일하는 조선인 식모가 심한 학대를 견디다 못해 가출하자, 清水부인은 문군의 사주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을 품고 경찰에 신고하여 문군을 구속시켰는데,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주인공인 「나」가 清水의 집에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다.

그런데 나는 그때 심한 자기혐오의 기분에 빠져들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저 이런 의미의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다. 지금 당신은 내선융화(内鮮融和)라는 말을 했습니다. 바로 지금 그 문제를 온몸으로 통절하게 생각하며 괴로워하지 않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의 집안에 있는 식모에 대한 그런 식의 태도가 진정한 내선융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ところが、私はその時烈しい自己嫌悪の情に打ちのめされて、言葉が出なくなった。私はただこういう意味のことを云いたかったのである。只今あなたは内鮮融合ということをやられた。成程今の時その問題を身をもって痛切に考え苦しまない人は一人もないことであろう。だがあなたはあなた達の女中に対するああいう態度が、真の内鮮融合を計る所以だと思ふのかと。) 16)

식모를 보호하고 문군을 석방시키기 위해서 내선융화라는 말까지 동원하고 있는 자신이 우스꽝스럽다고 전제함으로써, 자신의 말이 진심이 아님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짐작 할 수 있지만, 이 말은 결국 진정한 내선융화를 위해서는 식모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선융화 즉 내선일체를 합리화하고 옹호하는 입장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내선일체 정책에 의해 왜곡되어 나타나는 사회현상에 대해 달관하여 체념한 듯한 표현으로 아우르려하고 있다.

우리들이 내선결혼의 가정을 긍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아래에서는 그들 부부(清水)야말로 그 선구적인 슬픔과 고통과 곤란을 도맡아 겪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야만 할 것이다.

(我等が内鮮結婚の家庭を肯定せねばならぬ限りにおいては、彼等夫婦こそ正にその先駆的な悲しみや苦痛や困難を一手に嘗めているのだと考えねばならぬではないか。) 17)

이와 같이 비슷한 환경설정에 의해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빛 속으로」에서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던 내선일체의 융합과 옹호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광명」은, 평론 「조선문학풍월록」이 시대적 상황변화에 맞게 내선일체 사상을 수용한 「조선문화통신」으로 다시 발표된 것과 마찬가지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내선일체 정책에 협력적 제스처를 취한 것

16) 金史良 「光冥」 『文学界』 1941, 2, 『金史良全集Ⅱ』 河出書房新社, 1973. 42쪽.

17) 주(16) 『金史良全集Ⅱ』 48쪽.

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뒤를 이어 발표된 소설 「향수」도 설명할 길이 없어지고 만다.

4. 「향수(鄉愁)」와 대동아공영

「향수」는 1941년 7월 『文芸春秋』에 발표된 작품으로, 김사량이 1939년 봄 중국을 여행하고 느낀 체험담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 작가 자신의 분신이기도 한 주인공 이현(李絃)이 체험한 중국은, 일제의 식민지배에 투쟁하다 도피해온 누나와 자형을 비롯한 독립투사들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곳으로 묘사 되고 있다. 특히 누나는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마약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내선일체」라든가 「대동아공영」과 같이 일제가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을 미화를 위해 만들어 낸 말들을 사용하며 일제의 정책을 긍정하는 듯한 표현이 여러 곳에 보이고 있다.

지금 이 광야에는 철도가 놓이고 만주국도 건설한 발전을 이루고 있고, 나 또한 하나의 완전한 일본국민으로서 북경에 대한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이 만주국을 횡단하고 있는 것이다. 북중국은 이미 황군의 위력으로 평정되고 북경성은 명도 되었다.

(今この広野には鉄道が敷かれ、満州国も健やかな発展を遂げ、俺は又一人の完全な日本国民として北京へ思いを馳せながらこの満州国を横断しているのだ。北支は既に皇軍の威力で平定され北京城は明渡されている。) 18)

「나는 이 표로 돌아간다. 내 몸속에도 이 가치 만큼의 중국인의 피가 녹아들어오는 것이다. 이리하여 나는 훌륭한 동아(東亞)의 한사람, 세계의 한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 다시 한 번 누나와 자형을 위해 찾아 와야겠다. 다음에는 누나와 자형의 차례인 것이다」

(「俺はこの切符で帰る。俺の体内にもこの価だけの支那人の血がとけ込んでくるのだ。こうして俺は立派な東亜の一人、世界の一人になる。そうだ、もう一度姉や義兄のためにやって来よう。今度は姉や義兄の番なのだ」) 19)

18) 金史良 「鄉愁」 『文芸春秋』 1941.7, 『金史良全集Ⅱ』 133쪽.

19) 주(18) 『金史良全集Ⅱ』 158쪽.

위의 인용문에는 여러 가지로 거슬리는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일제의 「대동아공영」이란 명목으로 아시아 대륙을 침략해가는 정책을 옹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립 투쟁으로 고통스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누나와 자형마저도 자신과 같이 대동아공영을 위한 침략 전쟁을 이해하고 동참하도록 해야겠다는 각오로 작품을 끝맺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표면적인 친일 협력적 내용의 이면에는 역시 조선민족의 고난에 대한 고뇌가 짙게 깔려 있다. 특히 누나의 고통을 베이징의 골동품 가게에서 우연히 발견한 고려의 자기로 비유하여 그려낸 대목은 매우 인상적이다.

과연 송대와 명대의 도자기 사이에서 두 점만이 비명 같은 소리로 속삭였다. 저를 구해주세요. 저도 저도요. ……아——물론이지 물론이고말고, 라고 그는 마음속으로 외치면서 도자기를 집어 올렸다. 너희들은 역시 조선의 것이다, 고향 사람들의 위안과 사랑을 갈구하는 조선의 것이다. (중략)

그 도자기들은 쇠처럼 단단하여 손가락 끝으로 한 번 두드리자, 일종의 비통한 울림을 담은 소리를 냈다. 그 소리 속에 그는 죽음과 같은 누나의 신음 소리를 들은 것처럼 느꼈다. 아아, 누나가 구원을 요청하는 소리구나,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 아닌가, 라고 외쳤다.

(果たして宋代や明代の陶磁器の間から、二点ばかりが悲鳴のような声で囁き出した。私をお救いください、私も私です。……あ——いいともいいともと彼は心の中に叫びながら、それらのものを取り上げた。君たちはやはり朝鮮のものだ、故郷の人たちの慰安を愛情を求める朝鮮のものだ。 (中略)

それが鉄のように固くて一度指先で叩くと、一種の悲痛な響きのこもった音を出した。その音の中に、彼は死のような姉の呻き声を聞いた如く思った。ああ姉の救いを求める声だぞ、助けを求める声だぞと叫んだ。) 20)

그리운 고향의 품으로 돌아갈 수 없는 조선민중의 안타까운 상황을 해소하고 싶다는, 결국 「대동아공영」을 옹호하는 듯한 표현의 이면에는 이와 같은 조선민족의 고난에 대한 애담은 응시와 결부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전술한 정백수 등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은 「내선일체의 기만성」을 폭로하기 위한 투쟁 등은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추상적인 용어가 김사량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하더라도, 당

20) 주(18) 『金史良全集Ⅱ』 149쪽.

시의 절박한 상황을 살아가는 양심적인 작가의 고뇌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데는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 작가 스스로가 자신의 친일적 작품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 훤히 내다보고 있으면서도, 조선의 언어와 민중의 삶을 확보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마음에 내키지 않는 창작을 할 수밖에 없었던 작가의 양심을, 한 두 마디의 학문적 용어만으로 규정하기란 용이한 일이 아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발적 창작 전념기」의 작품 평가에 있어서 획일적인 용어의 하나인 「내선일체의 기만성의 폭로」만 가지고 김사량의 작품을 일괄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해야 할 것이다. 즉, 김사량의 문학을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한 것이다.

5. 조선말과 민중을 위한 협력적 제스처

지금까지 고찰해 온 바와 같이 작품 속에 일제의 내선일체 정책을 긍정하는 듯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으로는 「광명」을 들 수 있으며, 대동아공영이라는 명목 아래 벌인 대륙침략을 옹호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작품으로는 「향수」를 들 수 있다.

이 두 작품은 본래 「빛 속으로」와 마찬가지로 조선민중이 겪는 고난에 대한 안타까움과 민족애를 담아내려 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빛 속으로」 집필 당시와 같이 내선일체 정책을 반영하지 않고도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평론 「조선문화통신」에서 보이는 내선일체 운운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 할 수 있다. 내선일체 정책의 강력한 시행은 김사량의 힘으로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조선어 글쓰기까지 못쓰게 하여 조선문화를 말살시키려는 시도에는 도저히 침묵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자신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펼치기 위해서는 일제의 기본 정책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것인데, 조선민중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문화와 언어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친일협력자로 낙인찍힌다 하더라도 이를 실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김사량의 입장을 확인해 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조선민중이 일본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차별받는 장면을 묘사한 작품이거나 조선어와 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평론 이외의 경우에는 공공연히 일제의 침

략정책을 선전하거나 찬동한 바가 없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조선민중의 고난을 보다 못한 경우와 조선어와 문화를 지켜내기 위한 경우가 아니면 「내선일체」나 「대동아공영」이니 하는 말은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점이 다른 많은 자발적 친일 행태를 보인 작가들과 뚜렷이 구별되는 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의 이러한 생각을 우회적으로나마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로 김사량의 소설집 『고향(故郷)』의 발문(跋文)이 있다.

「벌레(虫)」에 나오는 지기미 노인이나, 고물 수집을 하는 화가나, 또 「향수」에 나오는 누나 가야(伽倻)나 이현(李絃)이나, 「광명」에 나오는 고학생하며 가난한 소녀들, 그리고 「유치장에서 만난 사나이」에 나오는 반 실성한 주인공하며, 그 밖의 모든 것들이 나의 영혼 속에서 조용히 읊조리고 있는 친구의 목소리이고, 또한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모습들이다. 각각 그들이 서로 멀리 고향을 떠나서 일본내지(内地) 혹은 북중국에서 고난의 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략)

(『虫』の中のちぎみ老人や屑屋の画かきにしろ、また『郷愁』の中の姉伽倻や李絃にしろ、『光冥』の中の苦学生や少女達にしろ、それから『Q伯爵』の心狂おしい主人公にしろ、その他のいずれもが私の魂の中に呻吟している親友の声であり、且つ同憂者姿といえる。たとえ彼等がそれぞれはなればなれに遠く故郷を隔てて、日本内地或は北支において苦難の生活をしていようと。(下略) 21)

인용한 발문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은 김사량의 한없는 약자로서의 조선민중에 대한 사랑이다. 이렇게 조선민중의 언어와 문화 및 삶을 지켜내기 위한 방편으로 협력적 제스처를 보이는 김사량의 문학을 「내선일체의 기만성」에 대한 폭로로 일괄하여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런데 생전의 김사량과 친분이 있었으며 재일한국인 문학 제1세대를 대표하는 김달수는 「광명」과 「향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김사량의 작품 중에 나중에 검토할 「향수」와 함께 당시의 시국이라는 것을 고려한, 혹은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약한 면이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어렵고 힘든 시대였다. (「광명」 해제)
(金史良の作品のうちでは、あとでみる「郷愁」とともに、当時の時局というものを考慮した、あるいは考慮しないわけにはゆかなかった弱い面がみえるものである。このことについてはあとでもふれるが、むつかしい、きびしい時代であった。(「光冥」解題)) 22)

21) 『金史良全集Ⅳ』 68쪽.

당시의 우리들 조선인에게는 「조국」이라든가 「고국」과 같은 말은 거의 금지 되어 있었다. 기껏 해야 「고향」이라는 말 정도가 허락 되었다. (중략)

그러므로 김사량이 여기에 쓰고 있는 「고향」이라는 것은 「고국」 혹은 「조국」을 말하는 것이다. (「향수」해제)

(當時のわれわれ朝鮮人には、「祖国」とか「故国」ということばはほとんど禁句であった。せいぜい許されるのは、「故郷」ぐらいのものであった。(中略)

だから、金史良がここに書いている「故郷」²³⁾というのは、「故国」あるいは「祖国」ということなのである。(「郷愁」解題)²⁴⁾

김달수도 「광명」과 「향수」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있으나 말을 삼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다는 말과 함께 오히려 김사량을 두둔하기에 여념이 없다. 평생을 조선민족의 진정한 해방과 재일조선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투쟁해온 작가 김달수의 이러한 자세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김사량의 이면세계를 동병상련으로 납득하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김사량이 『國民文學』과 『매일신보』 등의 친일기관지에 글을 연재하고 있을 때, 그 역시 친일기관지인 『경성일보』에서 사회부 기자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사량과는 같은 동인지의 일원이기도 했으며, 한국전쟁 중에 그가 행방불명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1954년에 그를 추모하는 의미로 『김사량 작품집』을 펴내기도 했던 김달수의 위와 같은 평가는, 비록 짧은 하지만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김사량은 스스로를 파멸의 구덩이로 내몰 수도 있는 일체의 정책에 부응하는 듯한 내용을 작품 속에 굳이 담아 내지 않고도 얼마든지 글을 쓸 수 있는 작가였다. 비슷한 시기에 집필된 작품으로 이러한 일체의 황국신민화 정책에 영합하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이다. 1943년이라는 언론탄압이 극에 달하던 시절에 친일문학 잡지 『국민문학』에 연재했던 『태백산맥』이야말로 김사량의 이러한 자세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태백산맥』에서는 갑신정변 당시의 일본의 태도를 약간의 호의적인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것 말고는, 「광명」이나 「향수」에서 보이는 친일 협력적 내용은 거의 찾아 볼 수가 없다. 오히려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22) 金達壽 「「光冥」解題」 『金史良全集Ⅱ』 381쪽.

23) 金史良의 소설집 『고향(故郷)』을 말함.

24) 金達壽 「「郷愁」解題」 『金史良全集Ⅱ』 385쪽.

민족의 아픔을 심도 있게 담아내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그러므로 김사량 자신이 그 누구보다도 깊게 상처받고 있었던 내선일체 정책 및 대동아공영과 같은 용어를 사용해 가며 친일적 작품으로 오해받기 쉬운 글쓰기를 했던 이유는 분명해진다. 민족해방혁명을 몸으로 실천 하려는 독립투사도 아닌 일개의 문필가로서 정치적이고 물리적인 힘을 앞세워 추진되는 황국신민화 정책을 막아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정책 안에서 조선민중이 차별당하고 학대 받는 일이라도 없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즉 「조선말과 민중의 보존을 위한 협력적 제스처」라는 측면에서 그의 작품은 이해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에서 「빛 속으로」 「광명」 「향수」를 고찰하게 되면, 해방 이전의 다른 작품들에 대한 평가도 자연스럽게 객관성을 확보하게 된다. 작가가 스스로가 「멸망해가는 것에 대한 애수(滅ぶものへの哀愁)」²⁵⁾를 담고 있다고 밝힌 작품으로는 「토성랑(土城廊)」 「기자림(箕子林)」 등이 있으며, 「식민지 근성에 의해 굳어진 인간의 추악한 비인간성을 전형적으로 그려내고 있다(植民地根性に凝り固まった人間の非人間性と醜悪とが典型的に照射されている)」²⁶⁾는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으로 「천마(天馬)」가 있다. 이 외의 작품들은 조선적인 정경을 듬뿍 담아내며 식민통치 아래에서 신음하는 민중과 일본거주 노동자들의 열악한 삶을 그려내는 소설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리고 1943년과 1944년에 걸쳐 발표한 한글작품으로 르포 「해군행(海軍行)」과 장편 『바다의 노래』가 있는데, 이 두 작품이야말로 김사량의 작가적 양심이 스스로를 더 이상 조선에 머물 수 없도록 만든 작품이었다.

특히 『바다의 노래』에서는 조선민중이 「국어(國語)」와 「우리나라(わが國)」라는 말을 상용하는 대신에, 조선이나 조선어라는 말은 아예 자취를 감추게 된다. 물론 여기에서 「국어」는 일본어를 뜻하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일본제국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된다. 결국 김사량 자신이 조선어의 존재를 부정하는 작품을 집필함으로써 조선의 언어와 문화를 지키기 위해 문필가의 양심을 걸고 투쟁하려던 사명의식도 그 명맥을 다하게 된 것이다. 이제 조선에 체류하고 있는 김사량에게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중국의 항일 투쟁근거지로 탈출하는데 성공하여 그들의 투쟁을 독려하는 글쓰기를 시작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작품 『바다의 노래』마저도 시국적 선동력은 미약한 상태

25) 「小説集跋文」 『金史良全集Ⅳ』 67쪽.

26) 任展慧 「「天馬」解題」 『金史良全集Ⅰ』 382쪽.

에 머물고 있으며, 오히려 민족의 한 맺힌 정서가 애잔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맺음말

친일문학 연구자 임종국은 김사량의 작품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경박한 친일정신의 선전은 찾아보기 힘든 작가」²⁷⁾라 하였다. 이러한 임종국의 평가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예를 드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해군 지원병모집을 위한 글을 쓰게 할 목적으로 김사량을 포함한 작가들로 하여금 여러 해군시설을 둘러보게 한 일이 있는데, 이때 쓴 「해군행」마저도 「일본해군은 아름답고 우람하다」라는 식의 정경 묘사에만 치중하고 있을 뿐, 조선의 청년들로 하여금 일본제국해군에 지원하게 하려는 당위성 따위의 언급은 찾아 볼 수가 없다. 어쨌든 김사량은 이러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친일적인 문장이라도 쓴 덕분에 「재중국조선출신학도병위문단」의 일원으로 중국으로 건너가 독립군 부대로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

김사량은 무장투쟁에 참가할 만한 체력도 없었지만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독립투쟁에 몰두할 만큼 냉철하고 강인한 정신의 소유자도 아니었다. 그렇지만 피지배민족의 지식계층으로서 일제에 의한 식민지배에 대한 근본적인 모순은 이미 깊이 깨닫고 있었으며, 그의 시선은 항상 차별당하고 학대받는 불우한 조선민중을 응시하고 있었으므로, 그의 모든 작품은 이러한 시대적 모순과 지배 받는 민중의 아픔을 부각시키는 관점에서 집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김사량의 작품과 관련하여 여러 연구자들은 식민통치하에서 신음하는 조선민중을 그려내고 있으며, 내선일체 정책의 허구를 폭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평가로 일관하고 있었다. 그러다보니 내선일체 정책에 대한 비판과 동시에 긍정적인 자세를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광명」이나 「향수」와 같은 작품은 연구자들의 작품론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두 작품을 다루다보면 지금까지 김사량의 작품을 평가하는 기준이 잘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하더라도 김사량은 조선민중을 시야에 두고 민족적 양심에 따라 충실히 글을 썼던 작가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때로는 내선

27) 주(5) 『親日文學論』 207쪽.

일체라는 용어를 도입하면서까지 조선의 말과 문화를 지켜내려 했으며, 밑바닥 생활을 하고 있는 민중들의 영혼을 구원해 보고자 했던 것이다. 바로 이러한 작품이 「빛 속으로」이며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광명」과 「향수」로 이어졌던 것이고, 평론에서도 「조선문학풍월록」에서 「조선문화평론」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마디로 「조선말과 민중을 위한 협력적 제스처」라는 말로 표현 될 수 있는 김사량의 글쓰기였던 것이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암담함 속에서의 몸부림도 통하지 않게 되자, 심장병이라는 지병을 안은 채 중국으로 탈출하는데 성공하여 조선 독립군 부대와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게 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사량(1943.10.10-10.23) 「해군행(海軍行)」 『매일신보』
- 김윤식(1974) 『한일문학의 관련양상』 一志社, 48, 50, 51쪽.
- 임종국(2002) 『親日文學論』 민족문제연구소, 207쪽.
- 정백수(1991) 「金史良 小説 研究」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34, 45쪽.
- 추석민(2001) 『金史良文學의 研究』 제이앤씨, 2, 3쪽.
- 『金史良全集Ⅲ』 「海への歌」 河出書房新社, 1973.
- 『金史良全集Ⅰ』 河出書房新社, 1973. 377, 382쪽.
- 『金史良全集Ⅱ』 河出書房新社, 1973. 42, 48, 133, 149, 158, 381, 385쪽.
- 『金史良全集Ⅳ』 河出書房新社, 1973. 11, 26, 27, 28, 29, 57, 67, 68쪽.
- 『芥川賞全集 第二卷』 文芸春秋社, 1982. 397쪽.

要 旨

金史良の作品については、「植民地の支配下で苦しむ朝鮮民衆を描いて内鮮一体政策の虚構性を暴くことに焦点を合わせている」というのが、今までの多くの研究者の一般論としての評価である。ところが、こういった評価をもってしては、内鮮一体政策への自発的賛同がみられる「光冥」「郷愁」などの作品はその評価の枠を越えてしまうのである。それだからと思われるが、「光冥」「郷愁」のような作品は金史良を論じる研究者の間から取りあげられることが少なかったのも事実として認められる。この二つの作品を入れて論じると、今までなされてきた一般論としての評価が意味をなくしてしまうからであろう。

しかしながら金史良が、支配される民族としての作家的良心に従い、苦しむ朝鮮民衆を視野においた充実な書き方を行っていたことには疑いを入れる余地もない。それだからこそ、内鮮一体という政策的文句をも取り入れるなどのことまでして、朝鮮語と朝鮮の文化を守りきろうとしていたのであり、どん底にあえぐ朝鮮民衆の悲しい魂を救い上げようと苦しみもがいていたのである。こういった格闘のなかで生れた作品が「光の中に」であり、また当時のきびしい状況の変化に従い、「光冥」と「郷愁」につながっていくことになる。そしてこういった傾向はこれらの作品と発表時期をほぼ同じくする評論「朝鮮文学風月録」と「朝鮮文化通信」にもそのまま見受けられる。このような作品群は「朝鮮語と朝鮮民衆をるための守協力的ジェスチャー」といった言葉をもってはじめてその本来の姿を現してくる金史良独特の書き物である。

本稿では、金史良の創作のうち、こうした「朝鮮語と朝鮮民衆をるための守協力的ジェスチャー」の道程を追求していくうえで有効と思われる作品、「光の中に」「光冥」「郷愁」の3篇と、評論「朝鮮文学風月録」「朝鮮文化通信」の2編を主な考察の対象とし、今までの評価とはちがうより均整のとれた客観性の確保をその目標としている。

キーワード：金史良、内鮮一体、朝鮮語、朝鮮民衆、光の中に、光冥、郷愁、
朝鮮文学風月録、朝鮮文化通信、植民地支配 ジェスチャー

투 고 : 2006. 11. 30
1차 심사 : 2006. 12. 9
2차 심사 : 2006. 12. 30

住 所 : (301-773)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2동 삼부아파트 6동 53호
電 話 : 042-523-2709, 016-413-5841
e-mail : ulsasuca@hanmail.net